



## 2013년 첫번째 열린강좌-----

###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

최근 한국의 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시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과 변화를 싫어하고 진보를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정말 잘 할수 있을까요?

왜 진보주의자들은 분노하고 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시대에 정말 필요한 위대한 대통령이었을까요?

21세기에 들어선 이 시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 빨갱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과연 옳은 말일까요?

2013년 열린 강좌를 바로 이 문제를 주제로 엮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말 잘할 수있을까요?

미국을 위시한 영국 등 서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21세기 한국은 어떤 변화가 올까요?

미래를 진단하는 시간을 20세기의 역사를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

#### 1) 20세기의 세계와 이데올로기

1. 이데올로기 시대의 시작
2.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싹튼 문화사상
3.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신문화사상

#### 2) 한국사회와 이데올로기, 좌파와 우파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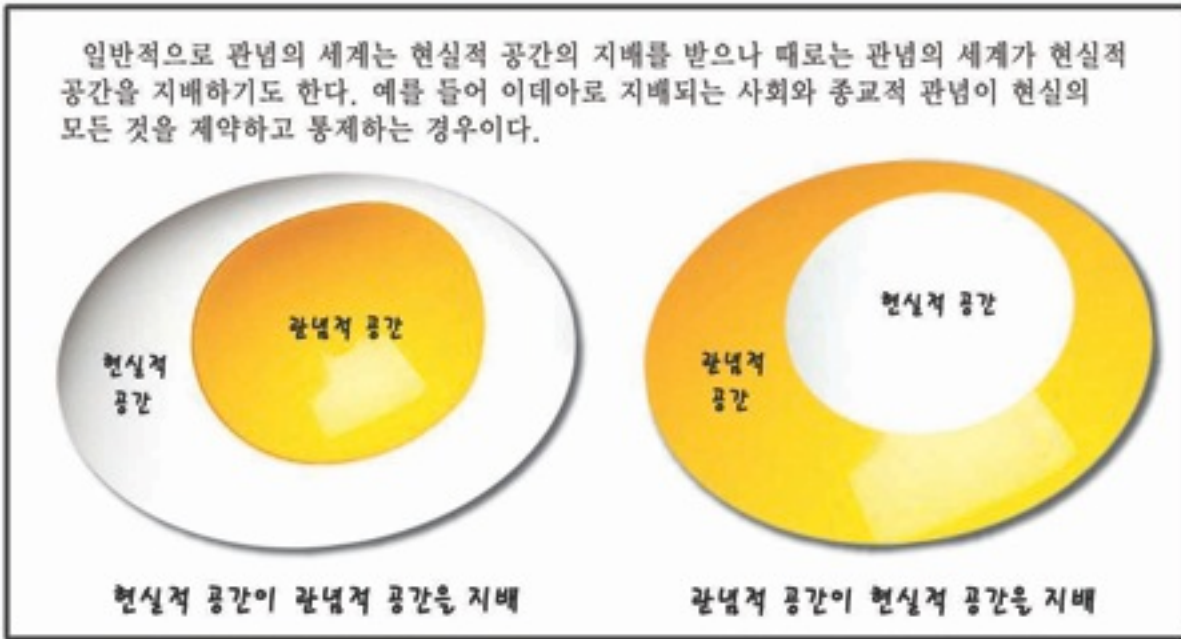
1. 한국의 전통사회 붕괴와 포스트모더니즘
2. 포스트모더니즘의 종말과 이데올로기 집착
3. 한국의 21세기를 위한 전망과 비전

일시; 2013년 1월 17일(목요일) 오후 3시

장소; 토튼흙 크라운 퍼브

## 쉽게 이해하는 관념의 세계와 이데올로기의 극복

우리는 누구나 이데아(관념)의 세계(이데올로기) 속에 삽니다.  
 때로는 한 발을 현실 세계 속에 담고 있지만 다른 한 발은 관념적 공간 속에 담고 삽니다.  
 우선 바르게 관념이 무엇인가?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이해합시다.  
 즉 이데아나 이데올로기는 현실과 분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관념 속의 공간은 집단의 관념이 차지하는 공간과 개인적 관념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집단 관념은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 종교문화 혹은 일정한 학습으로 형성되는 데 반해, 개인의 관념은 개인적 체험과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조율과 충돌으로 만들어지는 정신 세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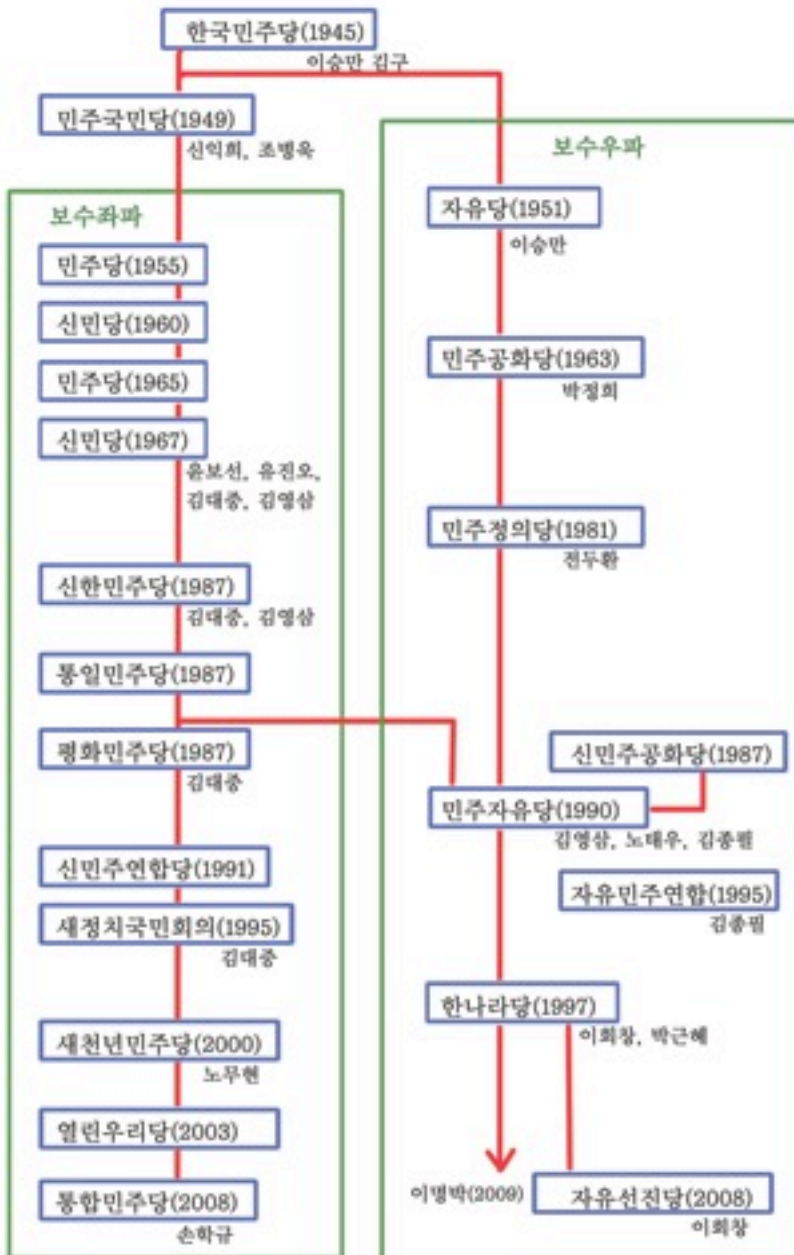




그러나 이데아나 이데올로기를 자칭 우파와 타칭 좌파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정치가들은 지금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세계를 대립시키고 한국에선 여전히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려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한국인들은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이중적 탄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 한국의 보수정당 계보





## 한국 좌파 정당사

1. 조선건국준비위원회(1945) : 조선공산당(박헌영), 여운형  
조선노동당 (1949.6.30) '조선인민공화국' 성립(1945.9.6)을 계기로 해산.
2. 북조선노동당(1946.8.28) : 북조선공산당(김일성), 조선신민당
3. 남조선노동당(1946.11.23) :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4. 진보당(1956) : 조봉암 등
5. 민중당(1990.11.10) : 백기완, 이우재, 고영구, 장기표, 박계동 등
6. 청년진보당(1998.11.29)
7. 사회당(2001.8.26)
8. 민주노동당(2000)



강의및 교재문의/[bookclub21@hotmail.com](mailto:bookclub21@hotmail.com)  
<http://www.facebook.com/RPInstitute>

## 2012년 열린 <전하현 열린 강좌의 주제 >

- 12월 19일 강연회; 이상한 나라 영국, 앨리스의 미술사
- 11월 22일 강연회; 21세기에 엘리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의 것
- 10월 26일 강연회; 현대문화사 강좌/ 유럽과 미국의 문화사 쟁탈전.
- 10월 5일 강연회; 한국 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영국 사회읽기> 2번째 강연/ 영국사회로 본 한국 사회구조
- 9월 28일 강연회; 사회문화강좌, 범죄 드라마로 분석한 영국사회
- 9월 4일 강연회; 에게문명과 아마르나 문명
- 8월 28일, 2차 <몽크와 데미안 허스트의 102년 만의 만남> 강의
- 8월 17; 덜위치 갤러리, 네덜란드 미술과 17세기 프랑스의 고전주의
- 8월 4일; 문화예술강좌/고딕-르네상스의 하이브리드 예술
- 7월 22일; 문화강좌/Sex & Sexy, Fashion & Passion, Money & Desire
- 7월 20일; 현대미술 강좌/<몽크와 데미안 허스트의 102년 만의 만남>
- 6월 29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종말, 그리고 오늘
- 5월 30일; 20세기 문화사 강좌/ 3개의 패러다임
- 5월 12일; 문화기행 강좌/ 리버풀 시티에서 만나는 빅토리안 건축
- 3월 30일; 현대미술과 페미니즘/ 야요이 쿠사마
- 3월 29일; 주영 한국 대사관(런던)에서 강연회
- 3월 22일; 문화산업 종사자를 위한 특강/ 21세기 초두를 이끌 문화, 환상주의 (FANTASISM)
- 2월 28일; 현대미술강좌/ 피카소와 영국의 모더니즘 2차 강좌
- 2월 16일; 현대미술강좌/ 피카소와 영국의 모더니즘
- 2월 15일; 미술사 강좌/ 바르비종파가 바꾼 세상의 풍경들
- 2월 9일; 창조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양강좌/ 여자란 무엇인가?
- 2월 2일; 창조산업 종사자를 위한 2차 강좌/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 1월 21일; 문화와 사회 현상강좌/ 이미지로 읽는 오늘의 사회
- 1월 19일; 창조산업 강좌/감동의 기술, 감동을 시켜야 뜬다!
- 1월 7일; 현대미술강좌/게르하르트 리히터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전개
- 1월 6일/ 문화예술강좌/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